

## 등록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록

1. 일 시 : 2012.12.26.(수) 15:00~17:00

2. 장 소 : 울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 : 교직원대표 : 송현호, 김민구 위원  
학생대표 : 허무관, 황민섭, 성하승, 이송희 위원  
관련전문가 : 배수환, 정찬빈 위원  
학부모 : 배광옥 위원

불참위원 : 이준섭, 박철균 위원

### 4. 회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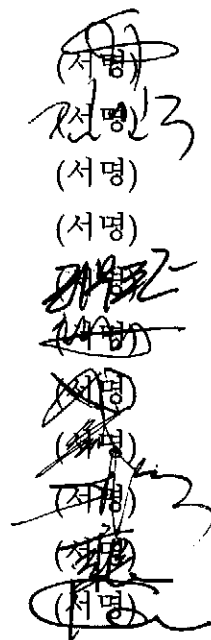
- 교직원대표가 우리학교의 대외 평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등록금 책정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다.
- 출석한 시설팀장에게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다.
- 학생대표가 원천관이나 팔달관 환경개선, 울곡관 난방공사 등이 결국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다.
- 시설팀장은 학교가 연차별로 학내 시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실 안전, 소방, 분전반 교체 등 안전이나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매년 투입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 학생대표는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시설공사는 어쩔수 없겠지만 외관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는 자제되어야 하고, 더욱이 학생식당 철거 등과 같은 학생 관련 사업 추진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 추진해야 함을 재차 말하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난방공사는 학교의 기금을 이용해서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다.
- 교직원대표가 학교가 매년 일정 금액의 건축기금을 적립하지만, 이는 종합관이나 국제학사 등 학교의 건물 신축비로 투입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대표가 단과대학 배분예산의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문의하다.
- 교직원대표가 단과대학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이전 회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자율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단과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세부 예산을 계정별로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다.
- 학생대표는 우리 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먼저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타 대학이나 언론사에서 우리 대학을 주목하고 있는 대외 환경도 고려해야 함을 말하며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다.
- 교직원대표는 당초 3.1% 인상안에서 시설공사 등 사업조정을 통해 1.5%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학생대표들에게 학교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책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다.
- 다음 회의시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확정하기로 하며,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경우 2012.12.28(금)에 개최하기로 하며, 6차 회의는 2012.12.27.(목) 15시에 개최하

기로 하다.

2012. 12. 26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송현호
위원	김민구
위원	이준섭
위원	박철균
위원	허무관
위원	황민섭
위원	성하승
위원	이송희
위원	정찬빈
위원	배수환
위원	배광옥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committee members, each corresponding to the name listed in the table. The signatures are written in black ink and are somewhat stylized.